

적립식 펀드투자에 성공하려면?

강창희 소장의 '투자 사랑방'



최근 들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계속해야 좋을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바뀌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다. 연초이래 주가지수가 2100선을 사이에 두고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잇을만하면, 단기주가전망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언론에 보도되곤 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펀드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의 성공은 주가 예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형 펀드를 팔아 채권형펀드나 CMA(Cash Management Account: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단기금융상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펀드투자 = 주가예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와 같은 펀드 판매회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펀드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투자 설명회 같은 데에 가보면 거의 예외없이 주가예측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난 전략가를 불러 주가전망을 설명하게 한다. 이런 경우 전략가들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회사에서는 이 주가전망을 근거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를 한다. 물론 전략가가 전망한 대로 주가가 오르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전망대로 되지는 않는다.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과는 달리 큰 폭의 하락을 보여 상승전망을 믿고 주식형펀드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필자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하도록 조언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인가? 펀드투자 방식에는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씩 투자하는 방식이다. 목돈 마련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투자방식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목돈이 없는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투자는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돈을 빌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 몇 년에 한번 정도라면 모르지만, 장기간 계속해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이상으로 투자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빌린 돈을 갚는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장기투자를 하기도 어렵다. 기일안에 원리금을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손실을 본 채로 펀드를 매각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젊은 투자자들의 목돈 마련 투자는 일정액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로 하는게 좋다.

물론 채권형펀드나 CMA로 해도 안될 것은 없지만 적립식 투자의 묘미를 얻을 수 없다. 마음이 약해서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혼합형 펀드로 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합형펀드란 주식과 채권을 반반의 비율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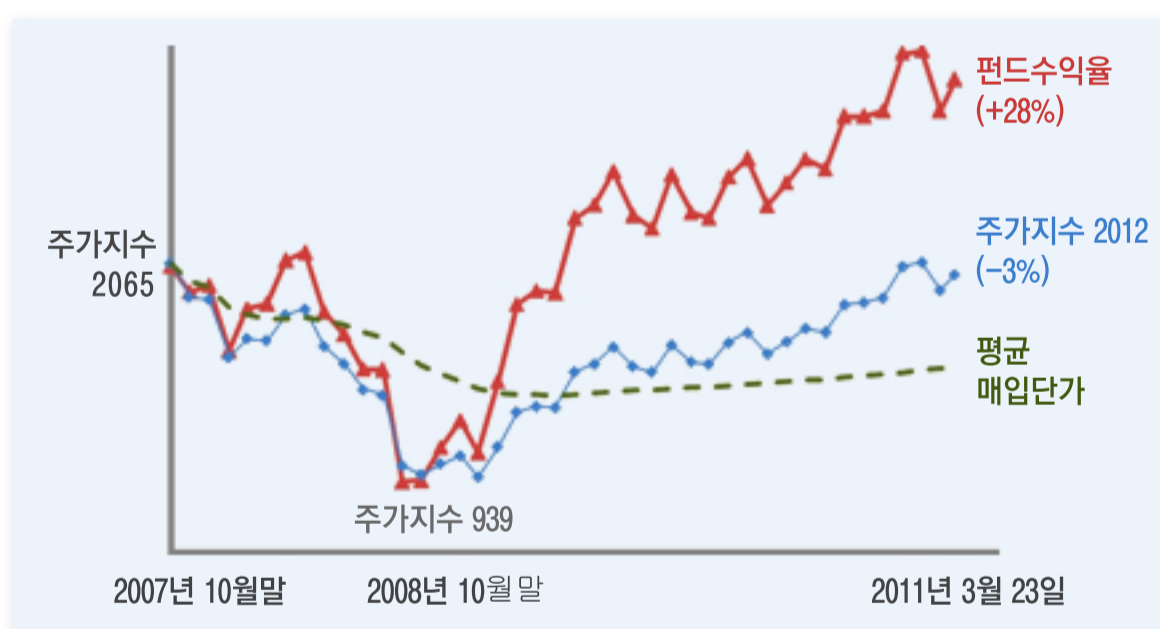
보통 하나의 주식형 펀드는 50개 정도의 우량 주식에 나누어 투자한다. 펀드의 가격은 그 안에 들어 있는 50여 개 주식의 평균 가격이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펀드의 가격도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펀드의 수량이 그만큼 적어진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기분은 나쁘겠지만 펀드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따라서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펀드의 수량은 그만큼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2년, 3년, 5년 투자를 이어가면 펀드의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7년 가을부터 한 달에 50만원씩 주식형펀드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시는 주가지수가 2000을 넘어 최고치 수준에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펀드 가격이 비싸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펀드 수량도 그만큼 적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불입했다. 1년 후 2008년 가을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2,000을 넘었던 주가지수가 900대까지 떨어졌다. 허리띠를 졸라 매어 아낀 돈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불입을 했는데 주가 수준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그때의 기분이 어떨겠는가? 당장 해약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가가 폭락해 있을 때가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이다.

주가수준이 높던 2007년 가을에 50만원으로 펀드를 100개 샀다면 2008년 가을 시점에서는 200개 이상의 펀드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돈으로 두 배가 넘는 수량의 펀드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약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금년 3월 말까지 적립식투자를 계속해 왔다면, 3월 말의 주가지수는 2012로 3년전 최고점대비 -3%수준에 있었는데도 적립식투자의 수익률은 +28%나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적립식 투자의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어찌보면 간단한 원칙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다. 2008년 가을처럼, 주가가 하루에도 100포인트씩 폭락하는, 내일이라도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당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그 달의 불입금을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2~3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은 남이 모르는 엄청난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적립식펀드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공투자 3원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한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정해야 한다.

적립식 투자도 단기로 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3년 이상 장기로 투자해야만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적립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가격이 변동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그 때문에 시장이 과열돼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투자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가 하락 후에 재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는 투자성과를 얻을 수 없다. 3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사전에 명확한 이익실현 목표가 없다면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한 이익실현 목표에 맞춰 환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목돈이 났을 때의 자산배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목돈으로 쌓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목돈투자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의 나이, 재산상태, 가족상황,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CMA등에 분산시키는 투자방식으로 바뀌어 한다. 이 방식을 거치식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한다.